

파주를 노래하다-장종 국

파주의 땅과 하늘을 노래한다

- 임진나루 서문

임진나루 서문



*진서문과 임진나루

백두대간 마식령을 발원한 강물 200여리 흘러

임진나루 당도하여 진서문을 두드리는 물장구소리

뱃사공 없이 묶여있는 거룻배는 가우뚱 뱃전만 기울고

꽃돌정자에 올라 율곡의 화석정을 시흥으로 달래며

의주대로 파발마 방울소리 울리는 역참의

“진서문을 열어라!” 화급한 호령소리에도

허물어진 성터는 흔적만 남아 함묵하누나

진서문은 진 주위에 석성 133척, 성첩 28칸으로

성울 8칸, 루명임문루 내사 20칸, 외사 32칸, 창고 4칸,

이수청 3칸 반, 진아문 3칸, 진서문루 8칸, 군보 2칸,
진부번호 4칸 반으로 성체는 우람 견고하였고
조총 180자루, 화도 255자루, 화약 89근, 철환 4960개에
진선 10척, 진부 54명으로 막강한 화력에
대장 1명을 위시하여 성문장 1명, 서원 1명, 통인 2명, 고직 1명,
기수 4명, 취수 3명, 시장직 1명, 산직 1명, 수척군 1명, 아병 30명
용맹한 군사는 다 어디로 가고 흔적만 초라하게 남아
헹한 강을 건너는 바람소리 고적하구나
임진나루는 삼천리강산의 배꼽자리일진데
임진나루 진서문이 활짝 열리는 날
남과 북 평화의 북소리가 금수강산에 울려 퍼지고
우리 민족끼리 부둥켜안고 덩 더덩실 춤을 추리
우리 민족끼리 뛰어나가 얼싸안고 만만세 부르리